

한국적 의복이미지와 디자인과의 관계

— 한국과 미국의 비교 —

이 경 희

부산대학교 가정대학 의류학과

The Relation between the Korean Costume Image and the Design

— The Comparison of Korean and American —

Kyoung Hee Lee

Dept. of Clothing and Textiles, Pusan National University

(1996. 10. 9 접수)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meaning structure of Korean costume image in contemporary Korean fashion design expressed beauty of traditional dress. This study compared Korean and American regarding the evaluation of Korean costume image. The result was as follows;

1. The constructing factors of Korean costume image were found out as elegance, simplicity, neatness, femineity, looseness. (total variance; 62%)

2. The visual evaluation between Korean and American were significantly different regarding 5 factors.

3. Korean costume design were classified 4 clusters. Korean traditional fabrics and colors were commonly used in the 4 clusters. Difference of design were found in the structure of form. Formation of Korean costume image were influenced by silhouette and pattern of fabric.

4. Image of 'Would like to purchase' were influenced by image of taste.

I. 서 론

복식은 명백한 외형적인 상징물로서 제일 먼저 쉽게 인지될 수 있는 문화 측면 중의 하나이며, 특히 물질문화의 한 측면으로서 사회발달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문화적 가치에 대한 최초의 단서로서 이용될 수 있다 (Kaiser, S.B., 1985 : 418). 또한, 복식은 무언의 전달매체로서 그 시대, 사회, 문화적 현상과 밀접한 관련을 지니고 있으며 그 사회의 문화는 복식에 반영되어 독특한 복식문화를 형성하고 이러한 복식문화는 보편성과 다양성을 지니고 변화해 왔다.

한국의 복식문화는 1960년대를 변화의 기점으로 볼 수 있는데, 그 당시 고유한 전통문화보다는 외래문화를 모방함으로써 새로운 문화에 적응하려고 하여 외래지향적인 측면에서 복식문화가 형성되었다(박찬부, 강혜원, 1994). 1960년대 이후 산업화와 경제성장 등으로 인한 생활수준의 향상에 따라 다양화, 고도화, 개성화의 소비욕구는 패션의 빠른 변화를 촉구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대중의 취향에 맞추어 생산구조가 기성복화되므로서 대량생산된 의복은 더욱 신속한 패션변화를 촉구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1970년대 중반 이후 수출산업으로 급성장한 패션산업은 패션산업의 국제화를 가져왔으며(김순심, 1991) 디자이너들의 활약에 의해 미래감각이 부여된 의상디자인이 개발되기 시작하였으나 한국의 패션디자이너는 주제성과 창조성의 표현보다는 모방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이후 1980년대의 다원화, 개방화, 세계화, 개성화에 따른 사회 문화적 체현상은 패션문화의 급성장을 가져옴과 동시에 1970년대 후반부터 역사성과 지역성에 가치를 부여하는 포스트모더니즘적 경향에 힘입어 민족의 고유한 문화적 전통을 확립하려는 자성적 노력이 활발히 진행되게 되었다. 따라서 한국의 패션계에서는 1980년대 중반 전후를 기점으로 전통문화에 대한 새로운 자각으로 인해 많은 디자이너들이 민족의 고유성, 한국적 전통표현을 주제로 한 작품들을 발표하면서 민족의 고유성, 민족의 정체감을 인식시키며 전통을 되찾자는 주제의식과 함께 한국적인 미를 찾는 노력을 하고 있다(최세완, 김민자, 1993; 김인경, 1995). 더욱이 90년대에 들어서서 한국의 패션산업은 국제화 추세와 유통 개방 및 소비자의 생활향상에 따른 고감각화에 대응하여 국제사회에 대비한 경쟁력이 중요시 되면서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라는 개념과 함께 디자인의 차별화에 대한 재인식이 절실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국제화 세계화 시대를 맞이하여 개방화되어갈 사회 속에서 전통의 재평가와 함께 국제화된 감각이 어우러질 수 있는 복식문화의 확립이 요구된다고 생각된다. 이에 발맞추어 패션업계에서는 국내 디자이너들의 해외진출이 계속되는 가운데, 한국적 요소의 반영이라는 차원에서 디자이너들 각각의 한국복식의 해석과 표현이 세계시장의 주목을 모으고 있다. 형태, 소재, 색상, 무늬 등 한국복식 고유의 것을 끌어내 현대적 패션으로 소화해 낸 이들 디자이너의 시도는 그 디

자인 가치면에서의 인정은 물론, 국내 패션업계 전반에 긍정적인 반응을 얻어내고 또 여파를 미치고 있다(Fashion Form, 1996).

또한 의류학계에서도 90년대에 들어서서 한국 패션의 정체성을 분석하고 정립하고자 하는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김순심(1991), 박찬부, 강혜원(1994) 등은 한국복식문화의 변천을 살펴봄으로써 그 특성을 밝히려 하였다. 금기숙(1992), 최세완, 김민자(1993), 김인경(1995) 등은 한국복식의 전통미를 표현한 현대 패션에서 한국적 디자인의 특성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은영(1996)은 세계화된 미래사회에서는 다른 나라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우리 고유의 전통문화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이의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하며 우리의 문화적 배경에서 우러난 미적 표현은 우리만이 할 수 있는 독립적 표현이기 때문에 우리의 전통문화를 배경으로 한 독특함이 다른 문화권의 사람들에게 보편성 있는 미로 받아들여질 때 비로소 국제 경쟁력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하였다.

이상의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한국적 복식미에 대한 이론적 고찰과 실제 디자이너들의 작품에 대한 주관적인 해석과 평가로서 그 특성을 분석하고 있다. 그런데 한국적 복식문화를 바탕으로 한 한국적인 복식디자인의 정체성을 체계적으로 연구하기 위해서는 개인적인 주관적 평가도 중요하지만 실증적 연구를 통한 객관적인 평가가 병행되어야 한국복식문화의 특수성을 면 보편성 있는 미로서 한국적 복식이미지가 현대 패션문화의 한 좌표를 설정할 수 있으리라 사료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적인 전통미가 현대 패션에 표현된 의복 디자인에 대한 주관적인 느낌을 객관적으로 해석하기 위하여 수량화과정을 통하여 한국적 의복이미지의 의미구조를 분석함으로써 한국적인 복식미의 정체성을 정립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그런데, 오늘날 기업체들이 세계경제 속에서 의류를 판매하고자 함에 따라 의류에 대한 소비자 태도에 있어서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점차적으로 중요시되고 있다. Kaiser, S.B.(1996)는 지구촌 시대에 여러 문화 또는 미국과 같은 한 국가 안에서는 다양한 문화가 서로 교류되어 상호모방되면서도 각각의 독창성을 유지하는 현상에 관심을 가져서 정체성과 문화간 비교연구를 강조하였다. Lee, M.H., & Burns, L.D.(1993)는 의복구매결정에 사용되는 평가기준의 중요성에 대하여

문화적 배경의 영향을 연구하기 위하여 비교문화적 관점에서 접근한 결과 사회의 문화적 가치는 사회구성원들의 소비자 행동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이명희(1993)는 한국과 미국의 남녀 대학생을 대상으로 여성의복에 대하여 문화에 따른 의복이미지 선호도를 비교한 결과 문화간의 차이를 발견하였으며 서로 다른 문화권에서 의복형태에 따라 이미지가 어떻게 달리 평가되는가가 연구되어야 할을 제안하였다. 전경숙, Kim, J.O.(1996)은 문화와 관련된 소비자 특성이 구매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기 위해 한국과 멕시코의 상이한 두 문화집단에 대해 조사하므로 글로벌화 시대에 비교문화적 관점에서 접근하고자 하였다.

Forney, J.C., Raboit, N.J., & Friend, A.(1993)는 의복가치와 의복의 원산지에 대하여 비교문화적 관점에서 연구한 결과 심미적 의복가치가 가장 중요한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미와 디자인은 다양한 문화와 나라집단에서 어떻게 정의되어지는가를 연구해야 하며 다른 문화적 맥락내에서 심미적 가치가 재정의 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우리가 보는 한국적 이미지에 대한 평가도 중요하지만 오늘날의 지구촌 시대에 타국인이 보는 한국적 이미지에 대한 평가도 중요하므로 일찍이 서구문화로서 우리의 복식문화에 영향을 미쳐온 미국(Park, S.N., Warner, P.C. & Fitzgerald, T.K., 1993)을 대상으로 하여 한국적 의복디자인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를 알아보고 또한 문화간의 이미지 평가 차이를 분석해 보는 것은 비교문화적 관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첫째, 한국적 의복이미지의 구성요인을 추출하여 의미구조를 알아본다.

둘째, 상이한 문화권에 따른 한국적 의복이미지의 평가차이를 알아본다.

셋째, 의복디자인을 군집으로 분류하고 군집유형별 디자인 특징과 의복이미지 차이를 알아본다.

넷째, 구매 욕구에 영향을 미치는 한국적 의복이미지를 알아본다.

II. 한국적 의복 이미지

21 세기를 앞둔 세계정세는 지구촌 시대를 열었으며

이러한 세계의 분위기 속에 1980 년대의 패션은 세계 각국의 복합된 문화의 표출에 따라 민속풍의 유행경향이 주요한 패션테마로 부각되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자문화 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나 타문화를 재평가하려는 것으로서 가치관 변화가 반영된 것이며, 민족과 지역을 초월한 문화의 애착으로 지구촌의 일체감을 표현해 주고 있다(송명진, 양숙희, 1992; 정연자, 1993). 또한 세계 패션계는 다른 문화권에 대한 관심과 더불어 인류학적인 각 민족 특유의 민족복식양식에 관심을 갖게 되었으며, 반대로 각 민족은 고유의 복식양식과 구미패션과의 절충적인 양식의 개발, 계승에 중점을 두게 되었다(김민자, 1990). 김윤희, 김민자(1991)는 서양복식과 동양복식의 외적 조형성 내지는 내적 상징성에 대한 비교문화적 관점에서 연구한 결과 동양복식의 형태는 대개의 경우 직물의 형태에 기초한 기하학적 형태로 신체에 밀착되지 않고 신체의 윤곽을 드러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것은 기술적인 문제보다 복식을 통해 인간이 표현하고자 했던 미의식의 결과로 해석하였다. 송명진, 양숙희(1992)는 1980년대 서양복식에 나타난 동양적 요소는 신체틀 구속하지 않는 드레이프 스타일, 트라페즈 스타일, 박스 스타일 등 매우 단순한 형태이며, 다양한 칼라와 소재, 트리밍, 화려한 악세서리가 조화를 이루어 매우 사치스럽고 장식적인 복식미가 두드러진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민족적 정체감은 전통적인 민속의상에서 뿐만 아니라 현대복식에도 반영됨으로써(Forney, J.C., Rabolt, N.J., 1985~1986) 문화에 따른 고유한 이미지를 정립해 왔다. 미국의 경우는 20C 초반부터 유럽 디자이너들이 패션계를 장악하고 있을 때 Mccardell이 미국의 사회상, 시대정신인 겸약, 편리, 기능적 형태의 옷을 디자인하기 시작했고 유럽 디자이너들의 의복만을 착용하던 미국 여성들에게 미국의 시대 정신을 의복을 통해 불어넣어 주었다. 새로운 감각으로 효율적인 생활을 유도하려는 그녀의 시도는 성공했으며 그 결과 유행미안 룩과 완전히 구별할 수 있는 아메리칸 룩을 확립하게 되었다(섬유저널, 1993). 일본의 경우는 아트 디렉터인 에이코 이시오카, 건축가 켄조 탕게, 의상 디자이너 이세이 미야게의 힘차고 설득력 있는 작업은 매우 일본적이면서 또한 완전히 현대적인 것으로 일본의 외부로부터 왔던 영향의 방향을 역전시키는데 성공하였다. 이들의 성공 이유는 첫째, 그들은 그들이 속한 각

분야에 있어서 현대적이며 서구적인 개념을 완전히 파악하고 있다는 것, 둘째, 그들은 과거에 존재했던 이론의 표본들을 끄집어내고 있다는 점, 셋째, 그들은 진정으로 고유한, 그들 나름대로의 감성을 보여 주면서 일본 지식층의 관심과 기대를 표출해 주고 있다는 것이다(김인경, 1995). 이상의 미국과 일본의 경우에서와 같이 한국 역시 한국의류제품이 국제무대에서 고부가가치 상품으로 인정받고 동양적 민속풍 중에 개성적이고 독창적인 한국풍을 한 축으로 자리잡기 위해서 국제적인 안목으로 패션계와 학계에서의 꾸준한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한국은 1980 년대로 공업화시대가 끝나고 90 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 백화점을 포함한 소매유통업이나 메이커들은 모두 국제화 시대에 돌입하여 한국의류패션산업 현황은 가격, 품질 등 하드웨어를 구성하는 요인들이 많이 좋아져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있으며, 소프트웨어 즉 패션감각이나 패션마인드는 점점 고도화되어 전 업계가 급격한 위치향상을 꾀하고 있다(섬유저널, 1991). 동양복식 중의 하나인 한국복식도 1980 년대의 한국의 개방화, 국제화의 요구에 따라 패션디자이너들에 의해 국제적인 흐름을 같이하면서 현대 한국복식의 고유성을 찾고자 하는 노력으로 한국적 디자인을 꾸준히 모색해 오고 있다. 특히 1990 년대의 본격적인 국제화 시대에 디자인 다원주의를 맞이하여 국내외적으로 치열한 경쟁 속에 살아남기 위해선 제품의 차별화가 중요하게 되었고, 제품의 차별화를 가져오기 위해선 한국적인 미의 정체성 확립이 무엇보다 중요하게 되었다.

따라서, 역사성에 기초를 둔 한국의 전통적인 복식미는 한국의 패션디자이너들에 의해 현대적으로 많이 활용되어지고 있으며 학자들은 그들의 작품분석을 통하여 한국적 디자인의 특성을 밝히고자 하였다.

금기숙(1992)은 한국 전통복식미의 현대적 활용방법을 3단계로 분류하여 한복의 형태적 특징을 직접적으로 모방하는 방법, 미적 특징을 선별하여 활용하는 방법, 미적 가치나 내재적인 미의 표현을 시도하는 방법 등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현대 의상디자인에서 나타난 전통복식미의 특징을 분석해 본 결과, 형태적 특징은 곡선적인 분위기의 표현에 집중되는 현상을 나타내고 의상디자인의 주된 요소인 선, 형태, 색채, 장식구, 문양 등을 적극 활용한 경우는 의복의 특징한 부분에 디자인의 요소가 집중되는 현상이 있는 한편 소재에 보다 많

은 관심을 기울인 의상디자인의 경우 의복 전체가 표현 대상이 되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색채적 특징은 전통색의 경우 명도대비현상이 주이고 현대 디자인에서는 다양한 색상대비를 중심으로 색채조화를 고려하고 있는데 이러한 색사용은 패션경향이나 디자이너의 취향이 많이 반영되는 것이라고 하였다. 소재는 주로 전통복식에 사용되는 실크, 마, 면 등이 사용되며 문양은 자연문과 기하학문이 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전통적인 문양의 경우 직접적인 모방단제로서 프린트나 염색에 의해 2차원적인 수준에서 표현되고 있으므로 문양의 표현방법과 개발의 다양한 시도가 요구된다고 하였다.

이것은 한국의 패션디자이너가 한국의 전통미를 현대적 디자인으로 표현하고자 했을 때 전통소재물 사용하여 한국적 이미지를 표현하고 있으나 차칫 전통무늬가 소재주의로 표현된 결과로 해석되기 쉬워 디자인의 감각보다는 소재산업의 후진성을 전달하고 있다(섬유저널, 1991)고 지적한 점을 보아도 앞으로 국제 경쟁력을 기르기 위해선 한국적 정체성이 표현된 디자인 개발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이선화, 금기숙(1993)은 현대패션에 나타난 텍스타일 디자인을 연구한 결과 예술가의 세련된 한국적 정서를 효과적으로 표출한 한국회화 작품을 텍스타일 디자인에 활용한다면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고 제안하였다. 최세완, 김민자(1993)는 한국 전통복식미의 고찰을 바탕으로 1980 년대 이후 한국 패션계에서 복식의 전통미가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지 살펴본 결과, 한국복식의 형식미 응용은 세부적인 부분보다는 전반적인 형태구성의 사용이 많았으며 구조형에서 비구조적인 평면형의 카프탄형과 H형의 윤곽선으로 의복 전반에 흐르는 자연스럽고 유연한 선을 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색채는 백색의 사용과 무채색 조화가 두드러졌고, 소재는 곱고 정교한 소재 중 투명한 모시의 사용이 많았으며 장식무늬는 현대적 미적 감각의 반영으로 인해 인위적 모티프와 자연적 모티프가 비슷하게 사용되었으며 디자이너 작품들 전반에 흐르는 미의식은 자연주의적 미의식에 따른 순수미의 추구로 해석하였다.

김인경(1995)은 한국적 패션디자인의 특성을 분석한 결과 우리가 되찾아야 할 전통 내지는 한국성은 우리 전통의 가시적 실체(선, 색, 소재 등)를 끄집어 내어 현대의상에 대입 절충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의 상황

에 맞는, 즉 현대에 있어서의 '한국성'의 의미를 철저하게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즉, 전통주의만을 고집한다든지, 현대의상에 무리하게 전통적 요소를 삽입하여 전체적인 조화를 깨뜨리는 일은 배제되어야 할 것이며 한국적 디자인은 내·외적인 측면을 종합하여 순수한 한국의 정신문화 전통과 현대화 요구의 충돌을 생생하게 체험한 역사적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한국성과 보편성을 보다 유연하게 융합시키는 자세가 바람직하다고 하였다.

이상의 선행연구들을 중심으로 한국적 의복이미지를 고찰하여 보면 패션디자이너들의 한국 전통미의 현대적 접목으로 전통적인 한국복식을 통한 형태미와 색채미, 소재미, 문양·장신구의 장식미를 직접적인 표현으로써 한국적 의복이미지를 표현하는 경향과 디자이너의 전통적인 안목에 국제적인 현대적 감성이 결합되어 다양한 형태, 색채, 소재 등을 사용함으로써 보편적 감각으로 융화된 작품들의 경향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한국적 디자인의 특징을 평가하는데 사용된 이미지 용어에서도 그러한 현상을 찾아볼 수 있다. 즉, 간결한, 소박한, 단순한, 절제된, 담백한, 자연스러운, 부드러운, 우아한, 넉넉한, 유동적인 등의 전통적인 이미지와 현대적인, 대담한, 화려한, 강렬한, 추상적인, 환상적인, 활동적인, 독특한, 복합적인, 다채로운 등의 현대적인 이미지를 나타내는 어휘들이 복합적으로 사용되어 디자인 특성이 분석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의복이미지는 이론적으로 체계화되어 보편성 있는 미로서 일반화되기 위해선 객관적인 수량화 과정이 필요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실증적 연구를 통하여 한국적 의복이미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III. 실증적 연구

1. 평가 도구

본 연구를 위하여 한국적 의복이미지를 나타내는 의복자극물과 의미미분척도로 구성된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1) 의복자극물의 선정

의복자극물 선정을 위하여 한국적 의복이미지를 나타내는 의복사진 123 개를 국내 패션잡지와 섬유패션 디자인경진대회 작품집(1990~1994년)에서 수집하였다. 수집된 의복사진은 의복만의 시각적 효과를 보기 위하

여 얼굴, 발 부분은 제외하고 동일한 규격의 사진으로 제작한 후 사진배경을 제외한 의복부분만 회색대지에 붙여서 의복자극물을 제작하였다. 객관적으로 평가된 한국적 이미지를 나타내는 의복을 선정하기 위하여 부산대학교 의류학전공 대학원생 17명을 대상으로 한국적인-한국적이지않은의 형용사쌍으로 평가하게 하여 7점 척도로(좌 7점~우 1점) 산출한 결과 한국적 이미지가 보다 뚜렷한 의복사진 자극물 32개(5.0 이상)를 추출하였다. 본 조사에 사용된 의복자극물은 슬라이드로 제시하였다.

2) 의미미분척도의 구성

한국적 의복이미지의 평가를 위한 의미미분척도를 구성하기 위하여 부산대학교 의류학과 대학생 및 대학원생 80명을 대상으로 한국적인이라는 용어를 제시하여 자유언어연상법에 의해 형용사 수집을 하였다. 수집된 형용사 중 사용빈도가 높은 것을 우선적으로 추출한 후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반대어를 추출하여 23개(자유언어연상 20개, 연구자 3개)의 형용사쌍으로 의미미분척도를 구성하였다. 의미미분척도는 한국어로 먼저 제작하였으며 영어설문지는 유타주립대학교의 의류학 전공교수와 적합성을 검토하여 완성하였다.

척도의 신뢰도검정을 위하여 9개의 의복사진자극물을 무작위로 선택하여 부산대학교 의류학전공자 30명을 대상으로 재검사법을 실시한 결과(1995. 4. 25~5. 8) 두 차례의 평가간에 유의한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척도의 안정성이 있으며 내적 일관성(Cronbach' α = .815)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반응방법은 자유로이 반응할 수 있는 반응자유법을 실시하였으며, 어의차 수준을 보다 정확히 반영하기 위하여 왼쪽 극단 9점 오른쪽 극단 1점을 부여하여 자료를 수량화시켰다. (채서일, 1992 : 161~175)

2. 자료수집

본 연구의 자료수집은 의복에 대하여 많이 알고 있는 전공집단이 보다 분별력있게 평가하므로 (이경희, 1991) 한국과 미국의 의류학전공 대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미국의 자료수집은 유타주립대학교의 Apparel Merchandising 전공 대학생 47명을 대상으로 1995년 5월 18일~6월 6일에 걸쳐 이루어졌다. 한국의 자료수집은 부산대학교 의류학과 대학생 50명을 대상으로 1996년 4월 17일~5월 18일에 걸쳐서 이루

어졌다.

3.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의 분석은 SAS Package를 사용하여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Varimax Orthogonal Rotation을 이용한 Factor Analysis, Oneway ANOVA와 Scheffé Test, Stepwise Multiple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SPSS PC+ Package는 Cluster Analysis를 하는데 사용되었다.

IV. 결과 및 논의

1. 한국적 의복이미지의 의미구조

한국적 의복이미지의 구성요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미국 대학생 집단에서 특히 설명력이 떨어지는 이국적인-자국적인을 제외한 22개의 형용사쌍에 대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고유치가 1.0 이상인 요인이 5개로 추출되었다. Table 1에서 살펴보면 요인 1은 입고싶은-입기싫은, 사고싶은-사기싫은, 좋아하는-싫어하는, 아름다운-추한 등의 선호도와 미적 가치를 나타내는 형용사쌍으로 구성되어 우아성요인이라고 하였다. 요인 2는 소박한-사치스런, 정적인-동적인, 단순한-복잡한 등의 형용사쌍으로 구성되어 단순성 요인이라 하였다. 요인 3은 단정한-단정하지않은, 깨끗한-지저분한, 정숙한-정숙하지않은 등의 형용사쌍으로 구성되어 단정성 요인이라고 하였다. 요인 4는 부드러운-딱딱한, 곡선적인-직선적인, 여성스러운-남성스러운 등의 형용사쌍으로 구성되어 여성성요인이라고 하였다. 요인 5는 풍성한-꼭끼는, 여유있는-여유없는의 형용사쌍으로 구성되어 여유성요인이라고 하였다. 5개의 요인이 전체변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62%이며, 우아성요인, 단순성요인, 단정성요인이 공통변량의 77.4%를 차지함으로써 한국적 의복이미지의 의미공간 내에서 중요한 차원임을 알 수 있다.

요인 1의 우아성요인은 박혜선, 이은영(1984)의 평가인자, 이경희(1991)의 매력성요인과 유사하게 나타났으며 요인 2의 단순성요인은 이경희(1991)의 실용성요인(요인 2)과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요인 3의 단정성요인은 홍병숙, 정미경(1993)의 품위성요인(요인 3)과 유사하게 나타났다. 요인 4의 여성성요인은 이경희(1991)의 경연성요인(요인 5)과 홍병숙, 정미경

Table 1. Factor Analysis of Korean Costume Image

Differential Terms	Factor Loading	Communality
Factor 1 : 우아성 (Elegance)		
입고싶은-입기싫은 (Would Like to Wear-Wouldn't Like to Wear)	0.897	0.830
사고싶은-사기싫은 (Would Like to Purchase-Wouldn't Like to Purchase)	0.887	0.815
좋아하는-싫어하는 (Like-Dislike)	0.849	0.779
아름다운-추한 (Beautiful-Ugly)	0.739	0.710
우아한-천박한 (Elegant-Crude)	0.535	0.598
멋있는-멋없는 (Splendid-Dull)	0.530	0.606
Eigenvalue ; 5.753		Total Variance(%) ; 26.2 Common Variance(%) ; 42.3
Factor 2 : 단순성 (Simplicity)		
소박한-사치스런 (Plain-Luxurious)	0.724	0.558
정적인-동적인 (Static-Dynamic)	0.686	0.482
단순한-복잡한 (Simple-Complicated)	0.672	0.561
평범한-특이한 (Ordinary-Unusual)	0.660	0.478
섬세한-대담한 (Subtle-Bold)	0.599	0.545
고전적인-현대적인 (Classic-Modern)	0.469	0.330
Eigenvalue ; 2.654		Total Variance(%) ; 12.1 Common Variance(%) ; 19.5
Factor 3 : 단정성 (Neatness)		
단정한-단정하지않은 (Neat-Messy)	0.719	0.702
깨끗한-지저분한 (Clean-cut-Sloppy)	0.715	0.644
정숙한-정숙하지않은 (Modest-Immodest)	0.709	0.610
안정된-불안정한 (Stable-Unstable)	0.563	0.575
청순한-요염한 (Innocent-Sensual)	0.460	0.512
Eigenvalue ; 2.123		Total Variance(%) ; 9.7 Common Variance(%) ; 15.6
Factor 4 : 여성성 (Femininity)		
부드러운-딱딱한 (Soft-Hard)	0.743	0.638
곡선적인-직선적인 (Curved-Linear)	0.734	0.561
여성스러운-남성스러운 (Feminine-Masculine)	0.682	0.546
Eigenvalue ; 1.805		Total Variance(%) ; 8.2 Common Variance(%) ; 13.3
Factor 5 : 여유성 (Looseness)		
풍성한-꼭끼는 (Voluminous-Tight)	0.867	0.760
여유있는-여유없는 (Loose-Fitted)	0.866	0.768
Eigenvalue ; 1.270		Total Variance(%) ; 5.8 Common Variance(%) ; 9.3

(1993)의 여성성요인(요인4)과 유사하게 나타났으며 요인 5의 여유성요인은 박혜선, 이은영(1984)의 요인 5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각 요인별 형용사들간의 내적 일관성을 Cronbach's α 값(0.62~0.88)으로 검정해 본 결과 비교적 높은 신뢰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2. 한국적 의복이미지에 대한 한·미간의 비교

한국적 의복이미지에 대한 한국과 미국의 시각적 평가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요인별로 요인점수를 사용하여 t-검정을 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요인점수가 높을수록 요인 1은 아름답고 우아한 이미지의 경향을, 요인 2는 소박하고 단순한 이미지의 경향을, 요인 3은 단정하고 정숙한 이미지의 경향을, 요인 4는 부드럽고 여성적인 이미지의 경향을, 요인 5는 풍성하고 여유있는 이미지의 경향을 나타내는 것을 의미한다.

Table 2. Comparison of Korean and American on Factors

Factor	Korean M(SD)	American M(SD)	t-value
우아성 요인	0.270(0.856)	-0.287(1.061)	16.03***
단순성 요인	0.314(0.703)	-0.334(1.150)	18.78***
단정성 요인	-0.385(0.842)	0.409(0.992)	-23.97***
여성성 요인	-0.003(0.861)	0.003(1.129)	-0.14***
여유성 요인	-0.075(0.845)	0.080(1.137)	-4.27***

***p<.001

Table 2에서 보면 한국적 이미지를 구성하는 5개의 요인에 대하여 한국대학생과 미국대학생의 시각적 평가는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내었다. 한국대학생들은 미국대학생들보다 한국적인 의복디자인을 보다 우아하고 단순한 이미지를 지닌 것으로 평가하였으며, 미국대학생들은 한국대학생들에 비하여 한국적인 의복디자인을 보다 단정하고 여성스러우며 여유있는 이미지를 지닌 것으로 평가하였다. Table 3에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우아성요인에서 한국대학생은 입고싶은, 좋아하는, 아름다운, 우아한, 멋있는 등의 긍정적인 평가를 하였으나 미국대학생들은 한국적인 의복을 우아하고 멋있는 것으로 느낀 반면 입고싶은, 사기싫은, 싫어하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단순성요인에서는 한국대학생들은 소박한, 정적인, 단순한, 섬세한, 고전적인 등으로 평가했으나 미국대학생들은 동적인, 특이한, 대담한 등으로

평가했다. 단정성요인에서 미국대학생들은 한국대학생들보다 단정한, 깨끗한, 정숙한, 청순한 것으로 평가했다. 여성성요인에서 한국대학생들은 부드러운, 곡선적인으로, 미국대학생들은 한국대학생보다 더 여성스럽게 받아드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유성요인에서 미국대학생들은 한국대학생들 보다 더 풍성한, 여유있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Table 3. Comparison of Korean and American on Terms

Factor	Terms	Korean M(SD)	American M(SD)	t-value
우아성 요인	입고싶은-입기싫은	4.80(2.29)	3.65(2.67)	12.83***
	사고싶은-사기싫은	4.70(2.25)	3.37(2.50)	15.59***
	좋아하는-싫어하는	5.20(2.24)	4.40(3.03)	8.30***
	아름다운-추한	5.75(1.84)	5.14(2.67)	7.48***
	우아한-천박한	5.71(1.87)	5.71(2.46)	-0.05
단순성 요인	멋있는-멋없는	5.77(2.03)	6.21(2.49)	-5.40***
	소박한-사치스런	5.34(2.03)	5.01(2.67)	3.97***
	정적인-동적인	4.79(2.36)	3.18(2.47)	18.56***
	단순한-복잡한	5.34(2.19)	5.07(2.96)	2.89***
	평범한-특이한	4.64(2.13)	3.68(2.54)	11.28***
단정성 요인	섬세한-대담한	5.10(2.05)	3.71(2.80)	15.75***
	고전적인-현대적인	6.07(2.30)	4.58(2.78)	16.26***
	단정한-단정하지 않은	5.58(2.12)	5.85(2.71)	-3.13***
	깨끗한-지저분한	5.06(2.16)	5.84(2.74)	-8.85***
	정숙한-정숙하지 않은	5.43(2.02)	7.46(2.12)	-27.26***
여성성 요인	안정된-불안정한	5.77(2.09)	5.54(2.61)	2.78**
	청순한-요염한	5.03(1.83)	5.68(2.53)	-8.20***
	부드러운-딱딱한	5.76(2.01)	5.38(3.07)	4.05***
여유성 요인	곡선적인-직선적인	5.11(2.33)	4.94(3.12)	1.74
	여성스러운-남성스러운	6.03(2.20)	6.72(2.48)	-8.18***
여유성 요인	풍성한-꼭기는	6.27(1.94)	6.79(2.60)	-2.12*
	여유있는-여유없는	6.25(2.10)	6.43(2.39)	-6.29***

*p<.05 **p<.01 ***p<.001

이상의 결과에서 미국대학생들이 한국적인 의복디자인에 대해 비록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으나 구매 행동과 관련된 이미지에서는 부정적인 경향으로 나타내어 반드시 좋은 이미지가 구매행동으로 연결되지 않을 수 있다.

3. 군집유형별 디자인 특징과 의복이미지

한국적 의복이미지에 따라 32개의 의복디자인들을 유형화하기 위하여 군집분석방법 중 워드(ward)법을 사용하였으며 덴드로그램(dendrogram)에 의해 군집유형을 분류하였다. 그 결과 각 군집에 해당하는 디자인을 고려하여 거리 13에서 군집을 나누어 4개의 군집을 얻었다.

군집 1은 7개의 의복디자인으로 구성되었으며 디자인 특징을 살펴보면 대체적으로 유동성 있는 직선적인 흐름으로 풍성하고 여유있는 사각형의 형태적 구조를 이루고 있으며 디테일은 매듭단추, 끈매듭, 술장식으로 한국적인 디자인요소를 사용하였다. 소재는 투박하고 두꺼운 면, 무명, 마 등과 매끄럽고 광택있는 양단, 공단을 사용하여 전통적인 천연소재의 자연스러움을 표현하였으며 색채는 갈색, 벽돌색, 빨강, 파랑, 보라 등 자연색을 사용하고 유사조화를 이루고 있으며 무늬는 사용하지 않거나 부분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용도는 추동복이 대부분이다.

군집 2는 6개의 의복디자인으로 구성되었으며 디자인 특징은 군집 1과 유사한 풍성하고 여유있는 부드러운 사각형의 형태이나 비구조적인 평면형인 점에서 다소 차이가 있다. 디테일은 한 부분에 고리와 리본매듭으로 고정된 두루마기를 응용한 디자인이 많으며 소재는 얇고 고운 모시, 마를 주로 사용하고 있으며 무늬는 사용되지 않고 소재자체의 질감과 형태미가 두드러져 보이는 군집이다. 색채는 흰색계열, 벽돌색, 보라색 계열을 사용하고 단일색상조화를 이루고 있다. 용도는 춘추용이 대부분이다.

군집 3은 6개의 의복디자인으로 구성되었으며 디자인 특징은 군집 1, 2와 두드러진 차이가 나타나 여유없이 인체선을 따르는 슬림형 실루엣의 형태적 구조를 나타내고 있다. 투피스의 경우 상의가 짧고 노출이 부분적으로 드러나는 형태이며 원피스의 경우 자연스럽게 허리선이 밀착되는 형이고, 디테일은 가슴과 허리부분에 끈매듭으로 묶는 형식이다. 소재는 비치는 까슬한 느낌의 모시, 마, 한지느낌, 은은한 공단 느낌이 사용되고 있고 무늬는 부분적으로 사용하여 비대칭조화를 이루고 있으며 전체적으로 무정형의 형태적 요소를 사용하고 있다. 색채는 흑백조화, 유사조화를 이루며 용

도는 여름용이 대부분이다.

군집 4는 다른 군집보다 가장 많은 결합과정을 거쳐 13개의 의복디자인으로 구성되었다. 디자인 특징을 살펴보면 상의는 밀착되고 하의는 풍성하고 여유있는 형태적 구조이며 허리선은 자연스러운 위치이거나 높은 편이다. 소재는 면, 마, 견을 사용하고 있는데 소재의 무늬에서 추상무늬, 자연무늬, 조각누빔, 금박, 한국전통적인 무늬가 다양하게 표현되어 장식적 요소가 가장 많이 표현된 군집이다. 색채는 빨강, 파랑, 노랑, 보라 등 한국의 전통적인 색채가 원색조화를 이루고 갈색, 나무색 계열은 천연염색에서 느껴지는 색채로 유사조화를 이루고 있다. 용도는 춘추용이 대부분이며 대체적으로 실용적인 면보다 작품성이 강조된 의복들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4개의 군집은 한국적인 전통적 소재와 색채가 공통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단지 형태적 구조에서 디자인 차이가 나타나 실루엣, 소재의 무늬 등이 의복이미지 형성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의 디자인 특징을 가지고 결합된 4개의 군집사이에 이미지 차이를 알아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각 요인별로 요인점수를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Table 4) 우아성요인을 제외한 4개의 요인에 대하여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내었으며 특히 단순성요인과 여유성요인에서 군집유형간에 이미지 차이가 현저하게 나타났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 위하여 각 항목간의 평균점수를 사용하여 분석한 Table 5를 함께 분석하여 보면 우아성요인에서 4 군집간에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던 것이 각 항목별로 살펴보면 다소간의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우아성요인에서 군집 3은 다른 세 군집에 비해 가장 아름답고 우아하고 선호적인 이미지를 지닌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군집 4는 다른 군집에 비하여 우아하고 멋있는 이미지로 평가된 반면 선호적인 차원에서는 입기싫은, 사기싫은 이미지로 평가되었다. 단순성요인에서 살펴보면 군집 2가 가장 소박한, 단순한, 섬세한, 고전적인 이미지를 지닌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군집 4는 동적인, 복잡한, 특이한, 대담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단정성요인에서 살펴보면 요인에 대한 sheffé 검정에 있어서는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대체적으로 단정한, 정숙한, 안정된 이미지를 지닌 것으로 평가되었다. 군집 3은 다른 군집에 비해

보다 더 단정한, 깨끗한 이미지를 지닌 것으로, 군집 4는 다른 군집보다 덜 단정한, 덜 안정된 것으로 평가되었다. 여성성요인에서 살펴보면 군집 2에서 가장 부드럽고 곡선적이며 여성스러운 이미지를 지닌 것으로, 군집 1은 직선적이며 가장 덜 여성스러운 경향을 나타내었다. 여유성요인에서 살펴보면 군집 1과 군집 2는 가장 풍성하고 여유있는 것으로, 군집 3은 다른 군집에 비해 가장 덜 여유적인 것으로 평가되었다.

Table 4. Comparison of Clusters on Factors

Cluster Factor	Cluster 1	Cluster 2	Cluster 3	Cluster 4	F-value
우아성 요인	0.070 A	-0.074 A	0.217 A	-0.104 A	2.38
단순성 요인	0.210 A	0.529 A	0.287 A	-0.490 B	28.77***
단정성 요인	0.052 A	0.183 A	0.236 A	-0.222 A	3.40*
여성성 요인	-0.592 B	0.411 A	-0.016 A/B	0.136 A/B	11.50***
여유성 요인	0.360 A/B	0.587 A	-0.953 C	-0.024 B	22.20***

이상의 결과에서 살펴보면 군집 1과 군집 2는 대체적으로 의복이미지가 유사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단지 디자인의 형태적 특징의 차이에서 군집 1은 유동적인 직선적인 흐름을 지닌 직사각형의 실루엣으로 보다 덜 여성스러운 이미지로 평가되었으며 군집 2는 정방형에 가까운 평면형의 실루엣으로 얇은 소재를 사용하므로 우아한 부드러운 여성스러운 이미지로 평가되었다. 군집 3은 인체선을 따르는 슬림형 실루엣으로 부분적으로 노출이 표현되고 무정형의 형태적 요소를 사용하고 있어 현재의 유행이 가장 많이 반영된 의복 디자인으로 구성되었으며 다른 군집에 비해 입고싶은, 사고싶은, 좋아하는, 아름다운, 우아한, 멋있는 것으로 평가되어 가장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진 의복디자인들로 구성됨을 알 수 있다. 즉 단순한, 단정한, 깨끗한, 안정된, 여성스러운, 덜 풍성한, 디자인적 특징이 호의적인 한국적 의복이미지에 기여하는 부분이라고 하겠다. 군집 4는 다른 군집에 비해 장식적 요소가 많고 작품성이 강한 의복디자인들로 구성되어 선호하지 않는 군집임을 알 수 있다. 이는 부분적으로 현재의 단순하고 간소한 유행의 영향도 있겠지만 지나친 형태적 과장이나 장식은 시각적으로는 멋있어 보이나 호의적인 평가를 받을 수

없음을 시사해 주는 면이다. 이 결과는 지난 10여년 동안 한국적 패션디자이너가 하이패션 디자이너들이나 디자인 경진대회에서 학생과 신인들에 의해 주도되어 의상 자체를 너무 작품성이 강한 경향으로 흐르게 하여 생활복으로서 기능성보다 미적 표현에 주력하였기 때문이라는(김인경, 1995) 의견과 일치된다.

Table 5. Comparison of Clusters on Terms

Cluster Term	Cluster 1	Cluster 2	Cluster 3	Cluster 4	F-value
입고싶은-입기싫은	4.418 A/B	4.294 A/B	4.964 A	3.781 B	5.75**
사고싶은-사기싫은	4.212 A/B	3.993 A/B	4.830 A	3.639 B	5.71**
좋아하는-싫어하는	4.944 A/B	5.019 A/B	5.502 A	4.323 B	4.11*
아름다운-추한	5.296 A	5.734 A	6.051 A	5.134 A	3.11*
우아한-천박한	5.392 A	6.254 A	6.169 A	5.412 A	3.69*
멋있는-멋없는	5.573 A	5.771 A	6.196 A	6.209 A	3.39*
소박한-사치스런	5.627 A	6.204 A	5.636 A	4.254 B	14.14***
정적인-동적인	4.088 B/C	5.053 A	4.510 A/B	3.258 C	13.91***
단순한-복잡한	5.566 A	6.601 A	6.493 A	3.770 B	35.76***
평범한-특이한	4.739 A	4.852 A	4.883 A	3.232 B	22.86***
섬세한-대담한	4.286 B	5.579 A	4.461 B	3.945 B	11.98***
고전적인-현대적인	5.548 A/B	5.897 A	5.397 A/B	4.968 B	4.67**
단정한-안정하지않은	5.915 A/B	6.076 A/B	6.511 A	5.063 B	5.48**
깨끗한-지저분한	5.585 A/B	5.902 A/B	6.490 A	4.657 B	6.79**
정숙한-정속하지않은	6.778 A	7.005 A	5.978 A	6.139 A	3.03*
안정된-불안정한	6.022 A/B	6.222 A	6.097 A	5.001 B	7.30***
청순한-요염한	6.261 A/B	5.825 A	4.826 B/C	4.910 C	9.26***
부드러운-딱딱한	4.872 B	7.002 A	5.402 B	5.385 B	14.61***
곡선적인-직선적인	4.199 B	5.742 A	4.517 A/B	5.385 A/B	4.44*
여성스러운-남성스러운	4.919 B	6.887 A	6.856 A	6.660 A	8.26***
풍성한-복끼는	6.969 A/B	7.670 A	4.490 C	6.234 B	18.20***
여유있는-여유없는	7.085 A/B	7.852 A	4.714 C	6.431 B	17.11***

4. 구매욕구에 영향을 미치는 이미지

다양한 한국적 의복이미지 중 어떠한 이미지가 구매 행동에 연결되는 구매욕구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사고싶은-사기싫은'을 종속변수로 하고 21개 형용사쌍을 독립변수로 하여 단계적 회귀분석을 한 결과는 Table 6과 같다. 평가대상을 전체로 봤을 때 입고싶은, 좋아하는, 정속하지 않은, 정적인, 멋있는, 여유없는, 단순한 이미지가 사고싶은 이미지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7개의 독립변수로 구성된 회귀식에 의해 77%가 설명되어진다. 한국대학생의 경우 9개의 독립변수가 사고싶은 이미지에 영향력을 지니고 이 회귀식에 의해 77%가 설명되어진다. 입고싶은, 좋아하는, 아름다운, 여유없는, 멋있는, 현대적인, 단순한, 특이한 등의 한국적인 이미지가 사고싶은 이미지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미국대학생의 경우 입고싶은, 좋아하는, 정속하지않은, 깨끗한 등의 4개의 독립변수가 사고싶은 이미지에 영향을 미치며 이 회귀식에 의해 77%가 설명되어진다. 이상의 결과에서 살펴보면 입고싶은, 좋아하는 등의 선호도를 나타내는 이미지가 사고싶은 이미지에 가장 영향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한국대학생들의 경우에는 한국적 이미지에 익숙하고 우리의 것이므로 호의적인 반응에 따라 다양한 이미지가 구매행동에 연결될 수 있는 사고싶은 이미지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미국대학생의 경우에는 정속하지 않은, 깨끗한 이미지가 선호적인 이미지와 함께 사고싶은 이미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한국과 미국의 문화적 배경 및 의복가치관의 차이에 의한 것으로 미국 사람들이 심미적 판단을 내리는데 있어서 개인의 기호나 취향을 강하게 나타내는 것과 관련된 것이므로(박명석, 1979: 131) 한국적인 의복이미지를 지닌 제품을 미국시장에 판매하고자 할 경우 이러한 문화적 가치관 분석이 선행되어야 적합한 상품기획이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상의 결과는 김인경(1995)의 연구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한국적인 정체성을 담은 의복 디자인이 국제시장에서 팔릴 수 있는 제품이 되려면 외형적인 전통요소를 강조하여 시각적 효과만을 살린 작품성 위주의 장식적인 디자인보다 생활적인 측면에서 한국적인 미적 정서가 담긴 현대적인 의상디자인이 개발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뒷받침해 주고 있다.

Table 6. Comparison of Image in 'Would Like to Purchase'

Dependent Variable	Variable	Beta	t-value	R ²
Total	사고싶은-사기싫은	0.714	56.32***	0.770
	좋아하는-싫어하는	0.136	11.16***	
	정속한-정속하지않은	-0.052	-5.33***	
	정적인-동적인	0.031	3.45***	
	멋있는-멋없는	0.036	3.27**	
	여유있는-여유없는	-0.027	-2.83**	
	단순한-복잡한	0.020	2.18*	
Korean	사고싶은-사기싫은	0.551	27.71***	0.770
	좋아하는-싫어하는	0.270	12.66***	
	아름다운-추한	0.079	3.35***	
	여유있는-여유없는	-0.052	-3.50***	
	멋있는-멋없는	0.045	2.22*	
	고전적인-현대적인	-0.034	-2.77**	
	단순한-복잡한	0.061	3.95***	
	평범한-특이한	-0.049	-3.22**	
	부드러운-딱딱한	0.015	2.01*	
American	사고싶은-사기싫은	0.762	45.59***	0.765
	좋아하는-싫어하는	0.057	3.77***	
	정속한-정속하지않은	-0.047	-3.11**	
	깨끗한-지저분한	0.025	1.98*	

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고 결론을 내리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적인 의복이미지를 요인 분석한 결과 고유치가 1.0 이상인 요인이 5개 추출되었다. 요인 1은 우

아성요인, 요인 2는 단순성요인, 요인 3은 단정성요인, 요인 4는 여성성요인, 요인 5는 여유성요인으로 나타났다. 5개의 요인이 전체 변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62%이며 유아성요인, 단순성요인, 단정성요인이 공통변량의 77.4%를 차지하여 한국적 의복이미지의 미공간내에서 중요한 차원임을 알 수 있다.

둘째, 한국적 의복이미지를 구성하는 5개 요인에 대하여 한국대학생들과 미국대학생들의 시각적 평가는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내었다. 한국대학생들은 한국적인 의복디자인을 유아성, 단순성을 띤 의복이미지로 평가하여 미국대학생들에 비하여 보다 긍정적이며 선호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미국대학생들은 한국적인 의복디자인을 보다 단정성, 여성성, 여유성을 띤 이미지로 평가하였으며, 특히 유아성을 띤 이미지로 긍정적인 평가를 하였으나 선호하지 않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이는 미국대학생들이 한국적인 의복에 대해 비록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으나 구매행동과 관련된 이미지에서는 부정적인 경향을 나타내어 반드시 좋은 이미지가 구매행동으로 연결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셋째, 한국적인 의복디자인을 군집분석한 결과 4개의 군집으로 분류되었다. 4개의 군집은 한국적인 전통소재와 색채를 공통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으며 단지 형태적 구조에서 디자인 차이가 나타나 실루엣, 소재의 무늬 등이 의복이미지 형성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넷째, 한국적인 이미지와 디자인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군집 1은 유동적인, 직선적인 흐름을 지닌 직사각형의 실루엣으로 보다 덜 여성스러운 이미지로 평가되었다. 군집 2는 정방형에 가까운 평면형의 실루엣으로 얇은 소재를 사용함으로써 우아한, 부드러운 여성스러운 이미지로 평가되었다. 군집 3은 인체선을 따르는 슬림형 실루엣으로 무정형의 형태적 요소를 사용하고 있어 1990년대의 유행이 가장 많이 반영되고 다른 군집에 비하여 가장 선호하는 긍정적인 이미지를 지닌 것으로 평가되었다. 즉, 단순한, 단정한, 깨끗한, 안정된, 여성스러운, 덜 풍성한 디자인적 특징이 호의적인 한국적 의복이미지에 기여하는 부분이라고 하겠다. 군집 4는 다른 군집에 비해 장식적 요소가 많고 작품성이 강한 의복디자인들로 구성되어 선호하지 않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따라서 지나친 형태적 과장이나 장식은 멋있는 시각적 효과는 연출할 수 있으나 구매력 있는 상품가치

는 떨어지므로 한국적 이미지가 표현된 의복디자인을 세계적 무대에 제시하고자 할 때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구매욕구를 나타내는 사고싶은 이미지에 영향을 미치는 이미지는 입고싶은, 좋아하는 등의 선호도를 나타내는 이미지가 가장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의복제품은 개인의 기호나 취향이 크게 작용하는 것이므로 한국적 이미지를 표현한 제품을 세계시장에 수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그 나라의 문화적 배경 및 가치관 분석이 선행되어야 적합한 상품기획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의 연구결과는 한국적인 의복디자인에서 한국적인 정체성을 발견하고 한국적인 이미지의 개념을 정립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한국적인 정체성을 담은 의복디자인을 세계시장에 수출하고자 할 때 상품기획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는 연구대상이 한국과 미국의 대학생집단에 한정되어 있으므로 확대해석시 고려되어야 하며 앞으로 다양한 문화권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금기숙(1992). "한국 전통복식미의 현대적 활용". 복식, 19, 29-40.
- 김동철(1990). "한국 전통적 IMAGE의 현대적 표현에 관한 연구". 경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민자(1990). 한국패션의 고유 디자인에 대한 발전적 모색. 산업디자인, 110, 26.
- 김윤희, 김민자(1991). "20세기 서양패션에 나타난 동양복식의 형태미에 관한 연구(I) —보그지를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29(1), 1-12.
- 김인경(1995). "한국적 패션디자인의 특성에 대한 연구—1980년대 이후 한국 패션디자이너의 작품을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19(3), 536-547.
- 김순심(1991). "우리나라 복식현상에 관한 연구—1960년대와 70년대를 중심으로—". 복식, 16, 141-148.
- 박명석(1979). 동과 서—그 의식구조의 차이—. 탐구당.
- 박찬부, 강혜원(1994). "한국복식문화 특성의 변천에 관한 연구—1920년부터 1990년까지—". 복식, 22, 23-43.
- 박해선, 이은영(1984). "의복에 대한 의미분척도의 구성요인 추출". 서울대학교 가정대학 논문집, 9, 103

- 108.
- 이경희(1991). "의복형태 이미지의 시각적 평가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명희(1993). "한국과 미국·남녀 대학생의 의복 이미지 선호도와 성역할 정체감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17(3), 367-379.
- 이선화, 금기숙(1993). "현대패션에 나타난 TEXTILE DESIGN 연구". *복식*, 21, 113-128.
- 이은영(1996). "미래사회의 의류학-- 새로운 패러다임을 위한 제의--". 1996년도 한국의류학회 춘계 학술발표회, 1-11.
- 섬유저널(1991). *주한 일본 패션인이 본 한국의류패션산업*. 172-185.
- 섬유저널(1993). *저널에세이*. 49.
- 송명진, 양숙희(1992). "현대 서양복식에 나타난 이국취향(Exoticism)에 관한 연구--1980년대 중반~1991년의 서양복식을 중심으로--". *복식*, 18, 291-306.
- 전경숙, Jai-Ok Kim(1996). "미국산 청바지에 대한 소비자 태도의 비교문화 분석--한국과 멕시코의 남녀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국의류학회지*, 20(3), 493-501.
- 정연자(1993). "현대 패션에 나타난 민속풍(Ethnic look)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1(4), 215-229.
- 채서일(1992). *마케팅 조사론*. 학현사.
- 최세완, 김민자(1993). "현대패션에 표현된 한국복식의 전통미--1980년대 이후 한국디자이너의 작품을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17(1), 103-117.
- 홍병숙, 정미경(1993). "여성수트의 이미지 구성요인에 관한 연구". *복식*, 20, 73-82.
- Judith C. Forney, Nancy J. Rabolt(1985~1986). "Ethnic Identity: Its Relationship to Ethnic and Contemporary Dress." *Clothing & Textiles Research Journal*, 4(2), 1-8.
- Judith C. Forney, Nancy J. Rabolt & Lorraine A. Friend(1993). "Clothing Values and Country of Origin of Clothing: A Comparison of United States and New Zealand University Women." *Clothing & Textiles Research Journal*, 12(1), 36-42.
- Myounghee Lee, Leslie Davis Burns(1993). "Self-Consciousness and Clothing Purchase Criteria of Korea and United States College Women." *Clothing & Textiles Research Journal*, 11(4), 32-40.
- Sunae Park, Warner P.C. & Fitzgerald, T.K.(1993). "The Process of Westernization: Adoption of Western-Style Dress by Korean Women, 1945--1962." *Clothing & Textiles Research Journal*, 11(3), 39-47.
- Susan B. Kaiser(1985). *The Social Psychology of Clothing and Personal Adornment*. Macmillan Publishing Co., New York.
- Susan B. Kaiser(1996). "Thinking with Textiles and Clothing to Mark Moments: On the 20th Anniversary of the Korean Society of Clothing and Textiles", 1996년도 한국의류학회 춘계 학술발표회, 12-21.